

2018년 2/4분기

# 기업경기전망 보고서

2018. 3.



## I. 경기전망(BS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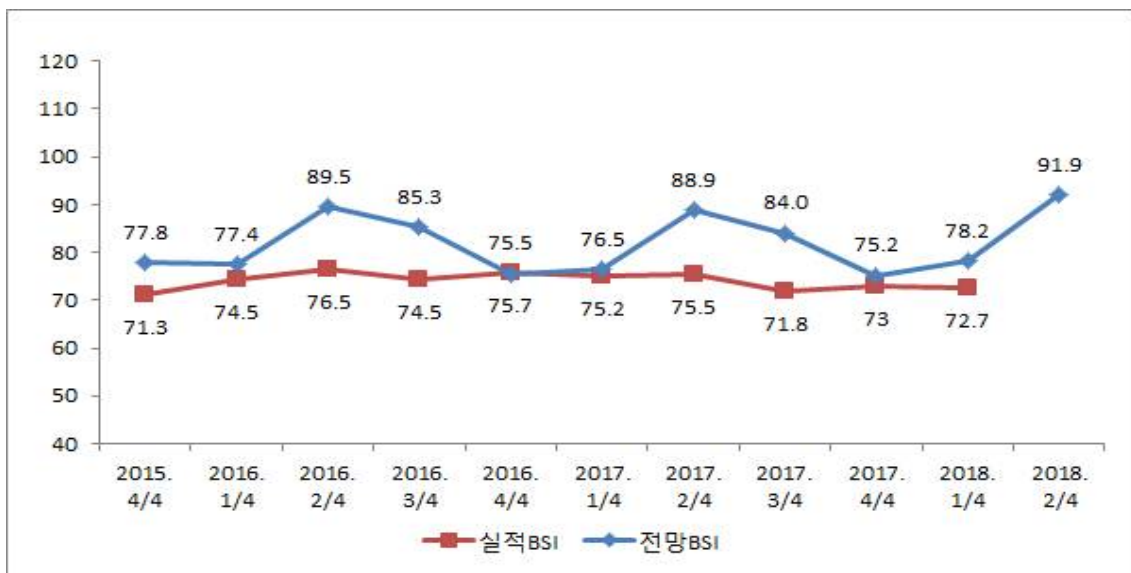
본 상공회의소 지역 내에 소재하는 1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2018년 2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」에 따르면 2018년 2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(BSI)는 전분기(75.2) 대비 16.7포인트 상승한 91.9로 조사되어 14년 2/4분기(93.5) 이래 90대로 첫 진입하면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.

이는, 지역 주력업종인 자동차업계의 신차 효과에 따른 실적 회복 가능성과 한-중 FTA 후속협상을 통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지역 기업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2/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

그러나, 대내적으로 내수침체 장기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환경변화가 지역 기업 경영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, 한-미 FTA개정 협상 등과 같은 대외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기업경기의 완전한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진다.

한편, 4/4분기 BSI 실적치는 72.7로 나타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여 지역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줬다.

<경산 · 청도지역 경기전망 B.S.I 추이>



구분 BSI	2015년				2016년				2017년				18년	
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
전망 BSI	88	89	79	78	77	90	85	76	77	89	84	75	78	92
실적 BSI	74	77	71	71	75	77	75	76	75	76	72	73	73	

◆ BSI(Business Survey Index)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~200 사이로 표시되며,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,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.

주요 업종별 2/4분기 전망 BSI는 기계·금속업종이 100.0, 섬유 68.4, 화학·플라스틱 89.5, 기타 업종이 100.0으로 나타나, 기계·금속업종과 기타업종에서 BSI 수치가 기준치(100)로 반등한 것이 눈에 띄었다.

주요 부문별 2/4분기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, 매출액은 내수가 92.9, 수출은 93.6, 영업이익은 내수가 93.6, 수출이 86.9, 자금 조달여건은 84.7로, 전분기 대비 전체 부문에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.

#### <주요 업종별 · 부문별 B.S.I>

항 목	분 기	2018년 1/4분기 실적	2018년 2/4분기 전망
	업 종 별	전 제조업	72.7
기계·금속		77.6	100.0
섬유		57.9	68.4
화학·플라스틱		73.7	89.5
기타		75.0	100.0
부 문 별	체감경기	72.7	91.9
	매출액(내수)	79.6	92.9
	매출액(수출)	84.8	93.6
	영업이익(내수)	67.7	86.9
	영업이익(수출)	73.3	84.9
	자금조달여건	73.7	84.7

## Ⅱ. 기업경영 핵심변수 및 정책과제

①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	백분율
美·中과의 통상마찰	14.9%
노동환경 변화	35.1%
가계부채 증가	6.4%
금리인상 가능성	13.8%
환율변동	9.6%
미래에 대한 대비 부족	13.8%
기타	6.4%
합 계	100%

☞ 노동환경 변화(35.1%), 美·中과의 통상마찰(14.9%), 금리인상 가능성(13.8%), 미래에 대한 대비부족(13.8%)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.

② 귀사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어디입니까?

	백분율
중국	20.8%
미국	18.7%
동남아	16.7%
기타	14.6%
수출실적 없음	29.2%
합 계	100%

☞ 수출실적 없음(29.2%), 중국(20.8%), 미국(18.7%), 동남아(16.7%), 기타(14.6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
③ 5년 전과 비교했을 때,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?

	백분율
수출환경 개선	14.6%
수출환경 불변	22.0%
수출환경 악화	63.4%
합 계	100%

☞ 수출환경 악화(63.4%), 수출환경 불변(22.0%), 수출환경 개선(14.6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
**4** 귀사는 교역과정에서 통상마찰(반덤핑, 상계관세, 세이프가드 등)의 피해 경험이 있습니까?

	백분율
피해 입은 적 있음	12.5%
피해 입은 적 없음	87.5%
합 계	100%

☞ ‘피해 입은 적 없음’에 87.5%, ‘피해 입은 적 있음’에 12.5%가 응답했다.

**수 통상마찰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귀사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?**

	백분율
법률적 대응 또는 해당기관에 공식 항의	0.0%
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	27.3%
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수용	36.3%
개인적인 인맥이나 거래관계 통해 해결	27.3%
기타	9.1%
합 계	100%

☞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수용(36.3%),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(27.3%), 개인적인 인맥이나 거래관계 통해 해결(27.3%)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.

**6** 미국 또는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해 거래선(주요 수출국)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?

	백분율
변경계획 있다	22.9%
변경계획 없다	77.1%
합 계	100%

☞ ‘변경계획 없다’라는 응답이 77.1%, ‘변경계획 있다’라는 응답이 22.9%로 나타났다.

**7**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	백분율
현재 협정이 상호 호혜적이므로, 미국을 설득해 현상유지	26.7%
개정을 하되,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	44.4%
우리 입장을 적극 주장해 더 반영시켜야 한다	22.2%
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면 폐기도 생각해야 한다	6.7%
합 계	100%

☞ ‘개정을 하되,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’라는 응답이 44.4%, ‘현재 협정이 상호 호혜적이므로, 미국을 설득해 현상유지’가 26.7%, ‘우리 입장을 적극 주장해 더 반영시켜야 한다’가 22.2%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.